

협의회사 보고 ① : 제54차 정기총회

우리 협회 제54차 정기총회가 3월 28일 오후 2시 30분 회원 645명(위임 194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기남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제35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이 있었다.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을 비롯한 단체회원 6관, 강병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기술정보팀장을 비롯한 15명의 개인회원이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김선평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 김순조 님, 양순자 님, 윤인섭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본지 129~132쪽 참조)

시상에 이어 본격적인 총회가 이용남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우선 2002년도 정기회계감사내용을 남택수 감사가 보고하였다. 집행과정 등이 적정하였음을 보고하면서, 우리 협회의 재정에 있어 일반회비의 분담율이 30%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IFLA2006서울대회 등 많은 일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내년 총회에서는 회비인상안을 다룰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2002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이를 승인하였다. 2003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어 전임 조원호 사무총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은 후 임원개선 절차를 진행하였다. 우선 의장은 새로운 임시의장의 추천을 요청하였고 이에 김지봉 회원이 한상완 회원을 추천하고 이에 모두 동의하여 한상완 회원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원개선안 처리를 진행하였다. 한상완 임시의장은 정관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회장 및 부회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평의원을 모두 선출하기 어려우므로 관례에 따라 총회에서는 평의원을 선출하는 전형위원을 관종별 대표 5인과 학계와 사무국 대표 각 1인 등 모두 7명을 선출하고 이들이 선출하는 평의원회에 회장 및 임원 선출을 위임하자고 제안하였고 회원들이 동의하여 이번 총회에서는 평의원선출전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잠시 휴회하고 각 부문별로 전형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결과 각 부문별로 추천된 7명의 전형위원을 승인함으로써 평의원선출전형위원을 확정지었다. 선출된 전형위원은 이숙현(국립중앙도서관), 강형일(공공도서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고기식(대학도서관, 홍익대학교도서관), 이흥주(전문·특수도서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기술정보팀), 서경은(학교도서관, 중앙여자고등학교도서관), 한상완(학계, 연세대학교교수), 이경구(사무국, 협회 사무총장) 회원이다. 임시의장은 전형위원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 명단은 협회 기관지(『도서관문화』) 지면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알리겠다고 한 뒤 다시 의장에게 회의 진행을 맡겼다. 이용남 부회장은 그 밖의 안건이 있는지 여부를 묻은 뒤,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총회를 마쳤다. (총회회의록은 본지 123~125쪽, 2002 사업결과는 본지 102~115쪽, 2003년 사업계획은 본지 116~120쪽 참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출된 평의원회선출전형위원은 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40명의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명단은 본지 128쪽 참조) 이렇게 선출된 평의원회는 4월 11일(금) 오후 2시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평의원 40명 중 29

명이 참석하였다. 우선 의장인 이용남 부회장은 평의원회의 안건으로 1. 회장선출, 2. 부회장 선출, 3. 감사선출, 4. 이사선출 등임을 알리고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우선 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의장이 신기남 현 회장을 재추대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박광하 의원이 동의하였다. 다른 후보 추천이 없어 신기남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부회장 선출에서는 관례에 따라 2인의 부회장 중 1인은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어 또 다른 1인의 부회장으로는 안상완 회원이 추천되었으며, 다른 후보가 없어 역시 만장일치로 한상완 회원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감사선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계에서 각각 1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후보 추천을 받은 결과 공공도서관계에서 김효순 회원(인천주안도서관장)과 박광하 회원(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대학도서관계에서 윤효근 회원(단국대 중앙도서관 과장)과 이재석 회원(아주대학교도서관 과장), 고기식 회원(홍익대학교 도서관 부장)이 각각 추천되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계에서는 박광하 회원이 후보사퇴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짐에 따라 김효순 회원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대학도서관계에서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윤효근 회원이 선출되었다. 이에 의장은 신입감사로 김효순 회원과 윤효근 회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사선출은 8명에서 최대 12명의 이사선출권을 신입회장단에 위임하자는 의장의 제안을 의원들이 받아들임에 따라 신입이사 선출은 신입회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입부회장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듣고 평의원회를 마쳤다. (평의원회 회의록은 본지 126~128 쪽 참조)

한 편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03년도 제1차 이

사회가 3월 14일(금) 16시부터 18:30까지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5명 중 12명, 감사 2명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이사회에서는 1) 2002년도 사업실적, 2) 2002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3)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4) 사무국 인사규정(안), 5)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회원 제명, 6) 제35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 등 6건의 안건이 심의되었다. 2002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회계감사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다만 회계감사 결과 보고에서 박종근 감사는 전체 예산에서 회비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회비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다만 IFLA2006서울대회 준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와 관리비 비중이 매우 커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조원호 이사의 의견에 대해 이사들이 사무국에 동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7천1백만원)을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포함시켜 재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무국 "인사규정(안)"의 개정에 있어서는 사무국 직원(사무총장 포함)에 대한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안)에 대해 자유토론 후 사무총장 62세, 3급이상 60세, 4급 이하 58세로 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신입회원 입회 및 탈퇴회원 제명 건과 제35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결정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사회 회의록은 본지 121~123쪽 참조)(글 : 유태형 팀장, member@korla.or.kr)